

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15:30	배포 일시	2022.10.18.(화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주 (jjjppp@korea.kr)
			사무관 심정민 (jmini@korea.kr)

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

-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2.10.18.(화) 14시 0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첫 번째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였음

<참석대상>

- (정부) 경제부총리(주재), 산업·과기·환경·고용·중기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국조실장 및 경제수석(9명)
- (민간) KDI·산업연구원 등 민간위원(14명), 전문위원장(2명, 비위원 자격)

- 이번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과 신산업 공급망 선도를 위해 마련한 「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방향」과 「기업 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논의·확정함

- ①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방향
- ②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
- ③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
- ④ (서면)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
- ⑤ (서면)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

※ (불임)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
기획재정부 <총괄>	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주 (jjjppp@korea.kr)
			사무관 심정민 (jmini@korea.kr)
산업통상자원부	소재 부품 장비 협력국 소재 부품 장비 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 진 (044-203-4910)
		담당자	서기관 임경섭 (kslim00@korea.kr)
			사무관 황채은 (mango64316@korea.kr)
			사무관 전성우 (jsw0519@korea.kr)
	소재 부품 장비 협력국 소재 부품 장비 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규봉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현섭 (kimroy123@korea.kr)
			사무관 오인봉 (oib0218@korea.kr)
중소벤처기업부	상상생 협력 정책국 상생 협력 정책과	책임자	과 장 손후근 (044-204-7920)
		담당자	사무관 전상민 (jsm1357@korea.kr)

- 지금부터 새정부의 첫 번째
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우리경제는 '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
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위기에
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왔으며,
그 결과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
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.
*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: ('19) 30.9% → ('21년) 24.9% (6%p ↓)
 - 다만, 최근 美-中 간 경쟁 심화, 공급망 블록화,
러-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
공급망 위기가 상시화·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
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.
 -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제가 되었던
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R&D 중심 지원체계는
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
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.
 - 특히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
중간재(소재·부품), 자본재(장비) 수입의존도를 낮추고
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
- ⇒ 이에 정부는 그간의 소부장 생태계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
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
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,
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
새로운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.

[①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방향]

[②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]

□ 먼저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
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① 우선, 정책대상을 對日·주력산업 중심에서
對세계·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.

-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
기존 6대 분야*, 100대 핵심전략기술을
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,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,
중점 지원하겠습니다.

* ①반도체, ②디스플레이, ③자동차, ④기계금속, ⑤전기전자, ⑥기초화학

- 아울러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
'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'으로 별도 선정, 관리하겠습니다.

② 둘째, 기존의 소부장 R&D는
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,
앞으로는 신산업 R&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,
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③ 셋째, 국내 수요-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
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해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,
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
'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'을 마련, 추진하겠습니다.

④ 이외에도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
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
차질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.

[③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]

- ☐ 다음은 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.
- ☐ 구매확약 등 수요기업 참여를 전제로
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간 협력사업은
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.
- 앞으로는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,
협회 등을 통한 발굴방식에서
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,
행정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
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- ☐ 계속해서 산업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
(산업부 장관 모두발언)
- ☐ 이어서 중기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
(중기부 장관 모두발언)
- ☐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,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